








노자벨레와 세 머리카락

-  Tessa Welch
-  Wiehan de Jager
-  Jong Yong Park
-  Korean
-  Level 3





먼 옛날, 세 여자아이들이 나무를 가지러 밖에 나섰어요.



정말 더운 날이어서 그들은 강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물 속에서 놀고 물장구치고 수영했어요.



갑자기, 그들은 늦은 것을 깨달았어요. 마을로 급히 돌아갔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노지벨레는 목에 손을 댔어요. 목걸이를 깜빡했어요! “나랑 같이 돌아가!” 그녀는 친구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노지벨레는 강으로 혼자 돌아갔어요. 목걸이를 찾아서
집으로 급히 돌아갔어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
어요.



멀리서 그녀는 한 오두막에서 불빛을 보았어요. 그녀는 급히 달려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놀랍게도, 개 한마리가 문을 열고 “무슨 일이지?”라고 말했어요. “전 길을 잃었고 잘 곳이 필요해요,” 노지벨레가 말했어요. “들어와, 아니면 물어버릴꺼야!” 개가 말했어요. 그래서 노지벨레는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개가 “요리해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개를 위해서 요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요리해, 아니면 물어버릴꺼야!” 개가 말했어요. 그래서 노지벨레는 개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곤 개가 “침대를 정리해줘!”라고 말했어요. “전 개를 위해 침대를 정리해준 적이 없어요,” 노지벨레가 대답했어요. “침대를 정리해줘, 아니면 물어버릴꺼야!” 개가 말했어요. 그래서 노지벨레는 침대를 정리했어요.



매일 개를 위해 그녀는 요리하고 쓸고 닦았어요. 어느 날 개가 “노지벨레, 난 오늘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해. 내가 오기 전에 집을 쓸고, 음식을 만들고, 내 물건을 닦아놔.” 라고 말했어요.



개가 가자마자, 노지벨레는 세 머리카락을 머리에서 뽑았어요. 한 머리카락은 침대 아래, 하나는 문 뒤에, 하나는 크랄 안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가능한 최대한 빨리 달려갔어요.



개가 돌아왔을 때, 노지벨레를 찾았어요. “노지벨레, 어디있어?” 개가 외쳤어요. “여기 있어요, 침대 아래,” 첫번째 머리카락이 말했어요. “여기 있어요, 문 뒤에,” 두번째 머리카락이 말했어요. “여기 있어요, 크랄 안에,” 세번째 머리카락이 말했어요.



그제서야 개는 노지벨레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았어요. 그는 마을로 달리고 달려갔죠. 그러나 노지벨레의 오빠들이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는 몸을 돌려 도망갔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香港故事書

global-asp.github.io/storybooks-hongkong

노자벨레와 세 머리카락

Written by: Tessa Welch

Illustrated by: Wiehan de Jager

Translated by: Jong Yong Park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香港故事書](#)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香港's many languages.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